

도내 초등 입학생수 전국 하위권

1개 학교당 전국 평균 70명이나 전북은 37명으로 절반수준 불과...임실은 고작 11명

저 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도내 초등학교 평균 입학생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학교 정보를 공식하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평균 입학생수는 1개 학교 당 70명이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입학생수는 37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남 31명, 강원 32명에 이어 전국 최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입학생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2014년 평균 입학생 수는 41명이었지만 지난해는 39명, 올해 들어 평균 2명 더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실이 1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어 순창과 진안이 각각 12명, 부안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제는 시 지역이면서 장수와 함께 평균 16명이 입학하면서 출산대책이 더욱 절실히 보였다.

이어 고창 17명, 무주 18명, 남원과 정읍 각각 23명, 완주 28명, 익산 42명, 군산 44명, 전주 88명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입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17명이고 이어 인천 101명, 경기 96명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곳도 상당하다.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 총 421곳(초교 5개교 포함)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해 모두 187곳으로 집계됐다.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공식한 곳 가운데 44%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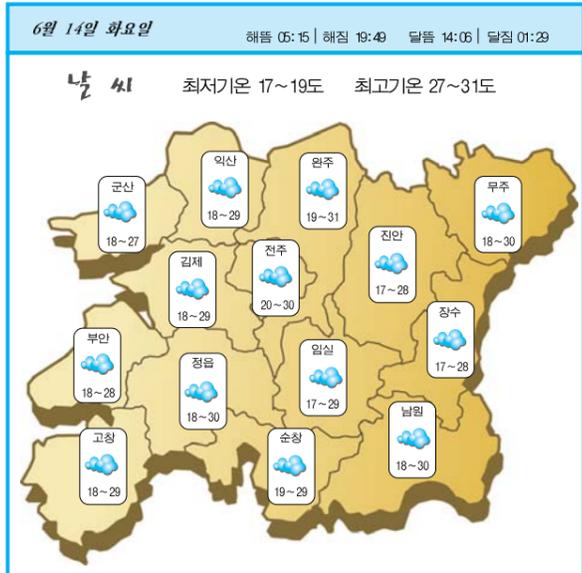
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강원(179곳)이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줄면서 수업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수도 많지 않았다.

도내 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는 6.1명으로 전국평균 18.4명의 1/3에 머물렀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구 감소가 끝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다만 고등학교는 이제 감소 시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병원 간호부 바자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부장 유말봉)가 지난 10일 병원 본관 지하층 모야홀에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아나비다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병원 내 간호부 소속 간호사들이 기부한 의류와 그릇 신발 도서 생활용품 등 3000여점이 전시 판매됐다.

병원 직원들과 병원을 방문한 내방객들은 기부된 물건을 구매하고 근절점액과 자원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판매 후 남은 물품은 나눔실천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에 다시 기부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공공의료사업단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의료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말봉 간호부장은 "간호사와 뜻깊은 행사에 동참한 병원가족과 내원객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이번 행사는 단순히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재화용 장터가 아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누리과정 예산없이 무상보육 어찌하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맞춤형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

"김승환 교육감 폭행사태 원인 정부 불통·무책임 탓" 비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폭행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긴급 국고 지원 및 근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2일 교육감협의회는 상명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에게 폭행이 가해진 데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전북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공식 사과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교육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 것"이라 맹비판하고 "정부의 불통 행정과 무책임이 이번 폭행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6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긴급 국고 지원, ▲근본 해결방안으로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의회 로비에서 장애인미술작품 전시회

전주시의회 로비에서 13~17일까지 5일간 전북도장애인미술협회 가 주최하는 장애인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술 관람 공간을 제공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장우 작가의 '비행', 이미에 작가의 '내 마음 꽃과 같이' 등 전북도장애인미술협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그린 우수 미술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김영재기자

전주 백제대로 벽면녹화 조성사업 완료

사업비 5400만원 투입 화산체육관·야구장·제례당 주변 등 3개소

전주시가 백제대로를 대상으로 한 벽면녹화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전주시는 전주화산체육관 주변과 전주야구장 주변, 제례당 부근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벽면녹화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대상 지역에 팽나무와 조팝나무 등 관목류 5종 2190그루와 송아 등 덩굴류 5종 3830본을 식재했다.

또 해당지역의 화단(371m)과 블록포장(7.6㎡), 녹지경계석(13.1m) 등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고, 투수성인 현무암 경계석(371m)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시는 콘크리트를 철거한 자리에 관목류와 덩굴식물을 심어 심미적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심속 녹색생활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심속 녹지를 증가와 경관개선, 생물 서식처 제공, 소음과 복사열 저감 효과 등도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6기 시정 방향

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콘크리트 웅벽 등 인공 구조물에 초록빛 자연과 생태움을 입히는 벽면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심 벽면녹화 사업으로 대기오염 정화에 도움을 주고, 화석빛 콘크리트 이미지를 대신 녹색도시의 심미적 안정감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입학사정관 위촉...입시 공정성 결의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전북대는 13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교수위촉입학사정관 위촉식 및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평가자로서의 공정성 확보와 윤리의식 및 책임감 고취 등을 결의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 입학업무 및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일환으로 대외협력팀을 통해 교수 위촉입학사정관의 역할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교수위촉입학사정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직무수행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모든 지원자가 열연, 지연, 학연, 생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26일 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매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서클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